

작품 내용

제 목	연필심이 부러진 날
내 용	컴퓨터 버튼 한 번에 근사한 문장들이 쏟아지는 세상 하지만 내 연필은 왜 자꾸 국어책 귀퉁이에서 툭 부러질까 친구의 잘 쓴 일기를 슬쩍 베껴 쓰면 숙제는 금방 끝날지 몰라도 지우개로 박박 지워낸 종이 자국마다 내 진짜 마음이 남몰래 아파와 서툰 문장이면 또 어때 오늘 아침 엄마한테 혼난 속상함도 운동장 벤치에 앉아 본 노을빛도 오직 내가 삼킨 숨결로만 적을 수 있는걸 누군가의 생각을 몰래 훑쳐오는 건 남의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것처럼 발걸음마다 어쩐지 자꾸 넘어지게 돼 나는 베끼지 않을 거야 비록 뻘뻘 비틀어진 글씨라도 내 손으로 꺾꺾 눌러 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원고지